



격려사

2007. 1. 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갑홍 원장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가족 여러분!

2007년 정해(丁亥)년의 희망찬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전기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기제품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교육, 불법 전기제품 단속 등 다방면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12월에는 "2006 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 전기전자제품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안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토대와 장을 마련하게 됐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수침체와 원화강세,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상승과 세계경제둔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 해 우리 전기제품업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해에 2004년 수출 2,000억달러를 넘어선지 불과 2년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 이상을 넘어서는 경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방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세계가 하나의 열린 시장, 한 지붕 밑의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면서 국가간, 그리고 기업간 경쟁이 더 없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유럽(EU), 중국 등이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본격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기제품 등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세계 각국의 엄격한 안전인증요건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커다란 무역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전기제품업체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부품의 모듈화, 시스템화를 비롯하여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기업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기제품으로 인한 감전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안전성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전기제품의 근절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위해정도가 높은 최소한의 제품에 대해 중점관리하되 상대적으로 위해정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임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사전예시적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단'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On-Line상의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e-안전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불법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불법공산품을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실시간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대 국민 안전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제도를 잘 준수하는 기업에게는 정부포상 및 법정 정기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에게는 선택적 집중관리를 하는 등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인 외국 안전인증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내 시험기관들이 가급적 많은 품목에 대하여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한 시험성적서(CB)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품목범위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그리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소비침체와 노사관계 그리고 세계경제둔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가간의 무역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시련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때 내일은 희망차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대망의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활기찬 한 해를 이룰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발전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